

## 사회복지 실천이론의 실체와 의미

홍 선 미\*

### I. 들어가는 글

전통적 학문선을 교차하며 학문들 간의 공통영역을 넓히는 사회과학의 재구조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복지실천학문의 이론적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은 시대적 흐름을 벗어나는 듯하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사회복지학이라는 독립된 학문영역을 확고히 해왔으나, 실용적으로 타 분야와의 교류가 빈번하며 이론적으로 주류 사회과학 분야에 의존하는 학문의 특성으로 인해 독립학문으로서 갖는 사회복지 실천학문의 정체성은 아직 모호하다.

학문이 가진 이론적 틀은 현상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통해 전문가에게 내재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사회복지 실천분야에서 접하는 다양한 범주의 지식은 각기 다른 학문적 배경을 근거로 상이한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인간과 환경이라는 이중적 관점과 다양한 수준의 체계에 개입하는 사회복지실천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나, 한편으로는 개인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 이상적 가치와 실천적 기술을 구체적으로 연결시킬 개념적 준거틀의 부족으로 인한 학문의 내적 정체성의 문제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실천과정을 규명하는 이론의 개념적 이해와 함께, 사회복지 실천 이론을 둘러싼 인식론적 논쟁을 검토하므로써 사회복지실천 분야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수준과 형태의 지식에 관한 존재론적 성격을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복지 전문적이 일관된 목표와 정체성을 가진 학문으로 성장하는데 기초가 되는 인식의 틀을 얻기 위해, 이론 체계의 구성 방향과 실천현장에 기반한 지식의 적용과 이론화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

\* 한신대학교 교수

## II. 본 론

### 1. 사회복지 실천학문의 이해

#### 1) 지식(knowledge)과 실천이론(practice theory)

지식은 사물이나 현상에 관한 객관적 사실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실을 조직하고 객관화시키는 과정에서 우리는 상이한 견해를 갖게 되며, 이는 객관적 지식에 주관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지식은 현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공유된 내용을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이해와 보편성을 끌어내며 합법화되는 과정을 거쳐 이론으로 인정받게 된다. 결국, 지식과 이론들은 진리와 구분되는 한계 속에서 서로의 객관성과 합리성, 유용성을 입증하려는 인식론적 논쟁으로 발전되며 이 과정에 정치적, 사회적 맥락이 결합된다고 본다.

더욱이, 실천이론은 가치기반의 전문직(value-based profession)이라는 특성에 기초해 실천의 본질과 맥락을 중심으로 주관적 실재를 설명하게 된다. 즉, 실천의 가치와 목표에 따라 실천현장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와 사고가 지배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실천학문의 지식기반은 사회복지 전문직이 추구하는 가치와의 연관성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추상적인 목적 수준의 가치를 실천과정 내에서 조직화시키는 과정에서 사회문제의 원인과 결과, 개입의 방향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연결되지 못하므로써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사회복지실천교육과 전문화과정 속에서 사회복지 실천의 궁극적 목적은 상당한 수준 합의가 이루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실천의 인식의 틀(conceptual framework)을 구성하고 타당한 이론을 선택하며 적용하는 과정에서 공통 기반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실천의 이론체계를 구성하고 궁극적으로 학문적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혼재하는 지식과 이론의 학문적 배경과 사회문제에 대한 시각을 분류하고 사회복지실천의 가치를 기초로 그 의미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 2) 사회복지 실천학문의 이론적 구성

##### (1) 사회복지실천의 기초지식과 실천이론

미사회사업교육협의회(The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1992a,b)는 사회복지실천 교육에 필요한 지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실천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사회, 문화, 과학, 역사, 예술, 철학 등을 포함하는 기초교양(liberal arts)과목을 비롯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human behavior and the social environment), 사회복지정책(social welfare policy), 실천과 실천기술(practice and practice skills), 다양성(Human diversity), 사회

적·경제적 정의(promotion of social and economic justice), 위험집단(populations-at-risk),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social work values and ethics), 현장실습(field practicum) 등이 포함된다. 개인으로부터 환경에 이르는 폭 넓은 관심영역으로 인해, 사회복지실천분야에서 활용되는 지식은 이와 같이 대부분의 사회과학 및 인접학문의 지식까지 포괄한다.

한편, 사회복지 실천이론의 개념을 실천 활동을 직접적으로 안내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한정할 수 있다. 사회복지 실천이론은 대부분 절충주의 형태를 띠며 사회복지실천과정에 유용하도록 타 분야의 이론들을 조합 또는 변형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학문적 배경이 다소 모호하다. 특히, 개인이나 가족, 소집단을 대상으로 클라이언트의 심리사회적 역기능의 치료와 예방에 개입하는 심리이론들은 사회복지 전문직의 내적욕구와 맞물려져 사회복지실천이론과의 구분이 없이 주요이론으로 사회복지실천의 교과과정 내로 흡수되었다. 정신역동이론, 인지행동이론, 인본주의 이론과 같은 기초 심리이론은 사회복지 실천모델의 형태로 구성되어 핵심적인 실천이론으로 받아들여진 대표적인 예이다. 심리모델들 이외에도 인간행동의 인지, 정서, 행동과 관련된 지식,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과 관련된 이론, 대인관계와 가족 치료, 위기개입, 장/단기 심리치료 기술 등도 이러한 특성을 갖는다(Austin, 1986).

## (2) 패러다임, 관점, 이론, 모델

### ① 패러다임(paradigm)

패러다임은 개념적 틀로서 세계관을 지배하고 현실에 대한 인식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론과 실천적 경향을 포함하는 추상적인 수준의 패러다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문의 인식론적 변화와 함께 역사적 흐름을 파악하며, 아울러, 학문의 외적환경인 사회의 분위기, 사상적 조류, 정치적 사건 등을 통해 사회의 주도적인 패러다임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실천 내부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의료적 개념으로부터 생태적 개념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20년대부터 1960년대에 사회복지사들은 실천과정을 클라이언트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과 동일시하며 개인의 심리치료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진단과 치료의 개념이 지배적인 전통적인 사회복지실천의 패러다임은 자본주의 사회의 개인주의적 가치와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사회적 욕구를 반영하면서 주요 패러다임으로 자리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환경적 요인에 대한 중요성과 탈상황적인 심리치료적 접근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면서 새로운 이해의 틀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특히, 도시빈민의 복합적인 문제와 함께 늘어나는 가족과 아동, 청소년, 노숙자의 문제는 사회 조건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인간과 환경사이의 적응적 관계를 중심으로 인식의 틀을 재구성하였다. 생태적 개념의 패러다임은 전통적인 패러다임에 비해 사회체계와의 상호의존적인 관련성을 중심으로 개인을 이해하도록

인식의 틀을 넓혀주었으나, 기존의 사회질서를 인정하며 갈등적인 사회관계를 간과하는 한계를 지적받는다. 80년대 이후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강조하는 소비자중심의 패러다임이 등장하여 점차 영향력을 높이고 있으나, 신자유주의적인 흐름과 생산적 복지라는 사회정책의 패러다임이 지배적인 현실에 비추어볼 때, 인간과 환경사이의 이중적 관점을 반영하는 생태적 패러다임은 사회복지실천의 주도적인 패러다임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 ② 관점/시각(perspective)

관점/시각은 개념적 준거틀(conceptual framework)로서 관심영역과 가치, 대상 등을 규정하는 사고체계이다. 패러다임의 하위 수준에 있는 관점은 학문적 범주 내에서 구체화된 이론을 분석하는 근거가 되며, 따라서 구체적인 수준의 이론과 모델로 분류되어도 해당 관점이 갖는 흐름은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다.

사회복지실천의 관점은 사회복지의 다양한 이데올로기적인 스펙트럼을 반영하면서 보수주의적인 관점으로부터 급진적 관점까지 다양하게 구성된다. 관점을 이분법적으로 단순히 나누어 볼 수는 없으나, 개인과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과 가치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점들 간에 상호 배타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가치개입적인 사회복지실천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개인의 적응과 사회변화라는 상이한 개입목표 간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따라서, 인간과 환경에 대한 동시적 관심 속에서 어떠한 이론도 통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생태체계적 관점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들을 상위수준에서 포괄하는 인식의 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론체계의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3절 사회복지 실천학문의 전문화에서 이어진다.

## ③ 이론(theory)

이론은 특정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이나 개념, 의미의 집합체로서, 관점/시각의 추상성을 한 단계 구체화한 특성을 갖고 있다. 즉, 가치나 의미, 사고 등을 보다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일반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관점/시각에서 다루는 내용을 조작화시키고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을 요구한다.

사회복지 실천이론은 기능적 사고를 대표하는 정신역동이론(psychodynamic theory)으로부터 최근의 임파워먼트이론이나 담론이론(discourse theory)에 이르기까지 클라이언트 문제에 대한 인식과 사회문제에 대한 분석을 상이한 시각에서 제공하는 다수의 이론들을 포함한다.

## ④ 모델(model)

모델은 일관된 실천 활동의 원칙과 방식을 구조화시킨 것으로 실천과정을 진행시키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술적 적용 방법을 제시한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사회복지실천에서 활용되는 모델은 관점과 이론을 배경으로 기술적 과정을 도출한 것 -정신분석 이론과 정신분석 모델, 행동주의 이론과 행동수정 모델, 인지 이론과 합리적 정서적 치료 등- 이 있는 반면, 절충주의적 성격으로 단일한 이론적 배경을 갖지 않는 모델 -심리사회 모델, 과제중심 모델 등- 이 있다. 그러나, 관점과 이론, 모델 간의 모호한 구분과 불규칙한 연결성으로 인한 혼란 때문에 이해의 차원을 넘어 단절적으로 이들을 분류하는 것의 의미는 크지 않다고 본다.

또한, 전통적인 실천방법론의 분류에 기초해 개인대상, 집단대상, 지역사회 대상의 개입방법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개입방법들로 나뉘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천이론을 다루는 교과목에서 지역사회대상의 실천은 제외되었으나 도시빈민의 문제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실천현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회행동, 사회계획, 지역사회개발과 같은 지역사회조직 모델이 다양한 실천모델의 한 레퍼토리(repertoire)로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 ⑤ 실천지혜(practice wisdom)/직관(intuition)/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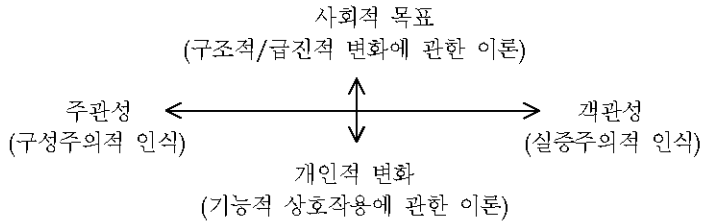
실천지혜 또는 직관/암묵적 지식도 실천현장에서 널리 활용되는 지식의 종류이다. 이들은 의식적으로 표현하거나 구체화할 수 없는 지식으로서 개인의 포괄적 가치체계와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도출된다. 실천을 통한 앎(knowing-in-action/learning-by-doing/reflection-in-action)을 강조하는 사회복지실천에서 경험적으로 얻어지는 이러한 유형의 지식은 사회복지사의 인지적 틀(cognitive schema)을 통제하면서 사회복지사의 활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의 직관에 기초한 비공식적인 지식은 행동과 사회현상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틀을 갖추지 못하므로써 유용성을 입증 받지 못하고 있다.

스칼(Scott, 1990)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실천으로부터 성공적인 원리를 추출해내기 위해서는 정보를 조직하고 해석하는 인지적 도식(cognitive schema)과 민속지학적 연구방법(ethnographic methodology), 반영적 토론과 사례간 비교가 가능한 지도감독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는 실천연구자(practice researcher)로서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한다. 실천지혜를 개념화하려는 실천가의 노력으로부터 실천지혜의 규칙이 발견되고 이것이 구조화되는 경우 이론은 실천으로부터 귀납적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 2. 사회복지실천이론의 분석

지금까지, 사회복지실천 지식의 다양한 형태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두 차원의 이론적 스펙트럼은 지식의 유형보다는 지식의 가치 기반과 철학적 입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실천의 존재론적 가치와 과학적 이론화 논쟁을 분석한다(그림 1). 사회복지실천을 둘러싼 이러한 이론적 논쟁은 실천을 행하고 이해하는 방식에 관한 의견이 일치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복지의 실천영역과 관련지식들의 다양한 학문적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 만일 이

것이 사회복지실천의 내재적 특성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다양한 인식들을 통합하고자하는 노력 자체는 무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론적 논쟁을 통해 논의되는 앎의 방식과 시각들을 이해 하므로써 인식의 차원을 넓히고 선택의 합리적인 기준으로 삼는다면 가치가 있다.



<그림 1> 사회복지실천이론의 이론적 분석틀

**1) 인식론적 논쟁(Epistemological debates) : 실증주의(positivism)대 구성주의 (constructivism)**

사회복지실천의 이론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식론적 논쟁은 지식의 객관성과 주관성에 관한 인식의 차이로 요약될 수 있다. 실증주의는 일반화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지식을 찾고자 한다. 모호한 사실보다는 경험이나 관찰을 통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만을 지식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경험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면 문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개입 또는 치료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Hudson, 1978). 한편, 대조적인 입장을 취하는 구성주의는 일반화된 의미보다는 현상학적 환원과정(phenominological reduction process)을 통해 직관적으로 파악되는 사실을 중심으로 보편적인 본질에 접근하고자 한다. 따라서, 해석과 지각의 차이, 맥락에 따라 달리 이해될 수 있는 사회적, 개인적 경험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그 불확실성의 의미를 탐색하도록 한다(Wakefield, 1995).

사회의 철학적, 사상적 흐름인 모더니즘적 사고와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와 맥을 같이하는 두 입장의 차이는 연구방법을 둘러싼 논쟁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1970년대 인식론적 논쟁의 중심에 위치한 실증주의는 체계적이고 명확한 과학적 지식과 실천의 효과성에 관심을 갖는다. 이후, 미국에서 이루어졌던 사회복지실천 분야의 많은 연구들이 과학적 근거를 강조하면서 실증적 실천과 경험적 연구방법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Reamer, 1983).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이후 실증적 연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험주의적 흐름은 구체적이며 합리적인 지식의 활용과 효과성의 검증을 통해 사회복지 실천의 책임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1) 연구방법의 변화양상을 분석한 홍경준(2002)의 연구에서는 1988년 이후 양적 연구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1979-1987년의 21.1%에서 1988-1994 47.8%, 1995-1999년 57.4%, 2000-2002년 69.2%로 증가).

그러나, 한편에서는 자연과학적 지식체계의 틀에 대한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러한 흐름을 비판하고 있다. 사회구성주의자들의 주장과 같이, 현실의 의미와 사회적 상황의 복잡성을 간과하는 실증주의의 인식과정은 많은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Imre, 1984). 즉, 인식주체가 사실적 존재인 인식대상을 거울과 같이 반영한다는 실증주의의 가정은 의미의 존재인 인간의 특성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또한,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경험적 사실에 의존하여 인과관계를 발견하는 방식은 해석과 통찰을 통한 인식의 산물을 고려치 않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각 개인의 주관적이며 상황적인 요소를 고려하며 다양한 삶 속에 개입하고자 노력해 온 실천적 노력과 사회적 의미는 걸러지고 최소한의 경험적 지식만이 남게 된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효과성을 검증받으려는 전문가의 욕구와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실증주의로의 편향성은 지속될 수 있다. 실증주의적 양적 연구방법이 특히 지배적인 우리나라의 경우, 인식론을 둘러싼 대립이나 논쟁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으며, 따라서, 실증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대안적인 노력도 아직은 부족하다. 최근에 이루어진 경험적 조사연구는 임상적 실천모델 또는 기술의 단계적 효과성에 관한 주제들이 다수를 차지한다(Rubin, 1985; Peterson, 1984). 이는 구조화된 개입방법과 측정 가능한 효과성을 중심으로 연구의 타당성을 입증받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주제들이 선호된다고 볼 수 있다.

실증주의 인식론에 대한 비판을 수용한 후기실증주의(post-positivism)는 제한된 임상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영역으로 연구를 확대하고 다양한 평가도구의 개발을 강조하면서 실증주의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Briar, 1990; Heineman, 1981). 또한, 다양한 인식론적 방법으로부터 상호보완적 입장을 함성하는 인식론적 다원주의(epistemological pluralism)는 인식론적 논쟁의 합일점을 찾는 새로운 흐름으로 인식된다(Peile, 1988). 이러한 절충적인 노력은 실천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실천현장의 객관성을 증가시키는 한편, 사회복지실천의 맥락과 과정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을 둘러싼 인식론적 논쟁을 피해 지식을 얻는 자체를 목표로 하는 실용주의적인 학문적 입장은 인식론을 둘러싼 논의의 수준을 지식의 경험적 수준을 결정하는 연구방법에 머물게 하며 보다 근본적인 의문은 도외시한다. 즉, 쉽게 통합될 수 없는 실천지식이 갖는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에 대한 고민이나 사회복지실천을 설명할 수 있는 통합된 거대이론(grand theory)의 존재에 관한 탐구적인 자세 없이 현재의 학문수준에서 절충점으로서 단절적인 실천지식을 제공하는 다수의 중범위 이론(middle range theory)과 연구방법을 수용하는 한계를 갖는다(Brekke, 1986; Loewenberg, 1984). 단절적인 지식은 각각의 실천현장에서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지라도, 사회복지실천의 중심적 가치와 원칙에 기초한 준거틀(frame of reference)과 통합되지 않으므로써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못하며 나아가 가치개입적인 학문적 판단을 유보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의 지식체계를 만들고 학문적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인식론적 논쟁은 사회복지실천의 역사적 사명(historical obligation)이나 본질적 의미에 관한 존재론적(ontological) 질문과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 2) 이데올로기적 갈등 : 사회적 변화 대 기능적 적응

오정수(1997)는 사회복지학 연구자의 이념적 정향에 따라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의 이중구조가 형성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념적 분화는 사회정책과 실천의 경계뿐 아니라 실천 내에서의 접근방법과 모델의 선택에서도 나타난다. 대부분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시각이 개인 대 구조적 해석의 문제로 엇갈리면서 상이한 분석틀을 제시하는 것과 같이, 사회복지실천에서 발견되는 (이데올로기적) 시각의 차이도 유사한 형태를 띤다.

인간의 심리 내적 갈등에 관한 정신 치료적 상담기법이나 대인관계에 초점을 둔 심리이론과 모델들은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해소 또는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지식과 기술로서 사회복지 실천의 관심영역에 일찍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정신역동적 접근(psychodynamic approach)과 같이 의료적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사회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결합에 두고 개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초점을 두는 접근방법은 사회복지실천의 기본가치와 상충되는 제한된 시각과 실천현장에서의 적용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로 인해 실천적 의미를 크게 갖지 못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심리모델은 사회복지사의 실천기술을 교육하는 교과내용의 핵심적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의 무의식적인 심리 내적 갈등에 관한 정신분석적 상담이론과 기법들은 의식 또는 전의식 단계의 상담이나 면접을 위주로 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실제로 많이 활용되지 않는 것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학과의 기초 교과목에서 행동주의이론, 인지이론 등의 심리이론들과 함께 사회복지실천의 주요 이론의 하나로 교육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과 중심적 가치에 기초한 존재론적 차원의 논의는 사회의 소외 계층을 돕는 사회복지적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사회복지 실천의 맥락과 사회적 조건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본주의 사회를 인정하는 사회복지학의 한계는 있으나, 급진주의 관점을 지향하는 흐름은 갈등주의적 시각에서 사회변화에 관심을 가져왔다. 사회적 정의나 계급적 관계와 관련된 이데올로기의 측면이 강조되는 급진적 사회복지실천은 실천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최근 반차별적 이론, 페미니즘 관점, 구조주의 사회복지실천, 임파워먼트 이론 등의 형태로 이론적, 기술적 실천지식을 제공한다. 특히, 급진적 개별사회사업(radical casework)을 제시한 푸크(Fook, 1993)는 피상적이었던 급진적 이론을 구체적인 개별 클라이언트와의 실천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목적과 개입 방법과 전략,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급진적 사회복지실천의 적용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된다. 이와 같이, 기능주의적인 또는 개인주의 지향의 심리사회적 접근방법으로부터 갈등주의적인 또는 집합주의 지향의 사회개혁적 접근방법까지 단일 학문 내에서 발견되는 시각의 폭이 넓은 것은 사회복지실천의 학문적 특성이 된다. 이러한 특성은 역사적으로 사회복지실천의 흐름이 개인의 적응과 사회변화라는 상이한 개입목표를 통합시키지 못하고 각기 필요한 사회과학 이론들을 선택하며 발전되어 온 배경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한편, 상황속의 인간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는 생태체계적 접근은 사회복지실천의 다양한 이론과 모델을 통합적으로 구성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마타니(Mattani, 1995)를 비롯한 생태체계



이론가들은 생태체계 이론이, 관점 또는 시각으로서, 구체적인 모델과 기술을 제공할 수 없는 수준의 이론이라는 한계를 인정하고, 체계적인 이론적 개념틀(theoretical conceptual framework)을 마련하는데 의의를 둔다. 그러나, 어떤 사회과학적 이론도 구성된 개념틀에 의해 사회복지사의 다양한 레퍼토리(repertoire)로 수용될 수 있다는 이들의 주장은, 다양한 관점과 형태의 지식들이 어떻게 선택되고 통합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므로써 설득력을 잃는다.

페이(Payne, 1997)은 관점과 모델이 일관되며 동시에 제공되지 않으면 효과적인 이론으로서의 합당한 근거와 실용성을 잃게 된다고 한다. 즉, 생태체계적 관점과 같이 클라이언트의 복합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개인, 집단, 지역사회 또는 거시적, 미시적) 수준에서 다양한(직접적, 간접적) 방법의 개입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개방된 개념틀만을 제시한다면, 인간과 사회를 보는 관점의 차이를 반영하는 모델과 기술의 선택에 혼란을 초래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실천의 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하게 된다(Dore, 1990; Meyer, 1987; Germain & Gitterman, 1987).

생태체계이론가들이 하나의 이론적 개념 틀로 다양한 이론들을 통합시키려는 절충적 시도를 한데 반해, 절충주의자들은 방법론적 다원주의자로서 사회복지실천의 이론적 다양성을 학문적 특성으로 인정하고 선택의 문제로 인식한다. 여러 이론들을 부분적으로 혼합하여 사용하는 절충주의자들의 입장은 지식을 통한 진리의 발견 보다는 실용적인 결과에 더 의미를 두는 듯하다. 즉, 주어진 실천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이론과 방법을 찾아 적용하는 일이다. 이와 유사하게, 다양한 임상모델을 소개하고 있는 도프만(Dorfman, 1988)도 사회복지 전문직이 환경 속에서 개인을 바라보는 관점과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공통점 이상의 것을 기대하지 않기를 요구한다. 우리의 다양한 영역을 통합하는 정체성을 기대하기 보다는 다양한 인식론적 입장을 통해 사회복지 실천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며 변화되는 이론과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회복지 전문직의 특성에 맞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변화하는 사회와 다양한 현장의 욕구를 반영하는 학문의 유연성을 높이는 반면, 가치기반의 학문인 사회복지학의 이론적 통합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의를 요한다. 즉, 쿤(Kuhn, 1972)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론들 간의 비양립성의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의 절충주의적 입장은 '사회복지실천의 전문가적 가치와 목적을 수용하고 인간과 환경의 이중적 초점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사회복지의 본질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타학문으로부터의 실천이론과 모델들을 무리 없이 통합시킬 수 있다'라는 근거 없는 전제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단선적 이론을 비판하며 상황 중심적이며 체계적인 사고로의 전이를 전제로 하는 생태체계적 관점은 단선적이며 결정론적인 심리치료 모델들과 지식기반을 달리한다. 또한, 상호교류(transaction)에서 발생하는 체계간의 힘의 역학관계나 갈등을 간과하고 사회의 구조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생태체계이론의 자유주의 시각

2) 단순한 형태의 절충을 넘어 실천모델로서 제안되는 절충주의는 모델의 통합성, 체계성, 포괄성을 강조하며 우발적이지 않은 경험지향적 실천을 지지한다(Rosen, 1988).

은 급진적 모델의 인식 틀과 일치되지 않는 문제를 일으킨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실천의 중심가치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과 모델들이 갖는 근본적인 차이를 소홀히 다루었다는 모순이 이들의 노력에서 발견되고 있다(Gould, 1987, Wakefield, 1996a, 1996b).

### 3. 사회복지 실천학문의 전문화

#### 1) 지식과 전문(직)화 과정

존슨(Johnson, 1972)은 “전문직은 중대한 사회적 이슈들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특권을 부여받는다”고 하였다. 즉, 전문가들은 지식을 통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관점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지식의 과학적 이론화 작업은 전문직의 정당성을 우리사회가 인정하게 하므로써 지식의 권력화를 이룬다. 결국, 지식이 그 자체의 진실성보다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신념이나 가치에 의해 인정받는 것이라고 볼 때, 학문의 순수한 목적보다는 지식의 도구적 기능이 강조된다.

지배층이나 주류문화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지식만이 권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지식과 권력의 관계는 전문직의 발전과정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문화는 지식에 대한 통제를 통해 전문적 지위를 얻으려는 집단의 노력으로 해석되기도 한다(Reiff, 1974). 이때 전문지식은 권력관계를 통해 지식인의 지배를 합리화시키며 클라이언트를 억압하는 기제로 사용된다(Wilding, 1982). 지식의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는 이와 같이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지식 자체보다는 지식이 옹호하는 사회적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해체(deconstruction)하는 과정을 통해 지식의 본질을 탐색하고자 한다(Schön, 1983). 이런 맥락에서, 후기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를 구성하는 힘인 전문가의 독점적 지식과 사회적 지배는 재조명되고 이를 추구하는 전문직들의 방향성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이 사회적 안녕에 기여하고 자신들보다 클라이언트의 필요를 중시하고 도덕성과 능력으로 책임져왔다는 긍정적 평가에 반해, 클라이언트의 비용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무시했으며 효과적으로 자신들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제시되고 있다(Wilding, 1982). 배타적인 지식과 기술의 축적을 통해 사회적 인가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사회복지직도 예외는 아니다. 즉, 사회복지직의 전문화 과정도, 다른 분야들과 매우 유사하게, 권위적이고 기술적이며 독점적인 전문직의 속성(traits)을 갖추므로써 사회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으려는 경향을 띤다. 사회복지직의 전문화에 대한 열망은 사회복지 실천이 발달해 온 지난 한 세기 동안 지속되면서, 사회복지직이 진정한 전문직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제기하였다. 특히 플렉스너가 지적한 전문직으로서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과학적인 이론과 방법을 찾는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이러한 전문화의 욕구는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지면서 심리이론으로의 편향성을 보여준다(Kane, 1982; Weick, 1983).

전문화의 욕구에 따른 실천가치와 지식간의 혼란은 통합적 실천(generalist approach)을 요

구하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더욱 일치되지 않는 문제를 일으킨다. 즉, 개별지도나 가족치료가 발달한 미국과 달리, 임상 사회사업 교육이 활용될 장(setting)이 적은 우리나라에서는 개별지도의 이론적 배경을 가진 실천모델의 적용가능성이 적을 뿐 아니라, 왜곡된 전문가 상(professional image)으로 인해 학문의 본질적 가치와의 갈등과 직업적 정체성에 갈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실은 전문교육과정의 개발이나 자격제도의 발전 이전에 사회복지 실천학문의 정체성에 기초한 이론적 체계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교육자들 사이의 혼란에 기인할 수 있으며, 더욱 근본적으로는 전문화 방향에 대한 사회복지직의 기능적 사고의 결과라고 비약시킬 수 있다.

## 2) 사회복지실천의 전문화를 위한 이론체계의 구성

그린과 유프러스(Greene & Ephross, 1991)는 사회 제도의 개선과 클라이언트 개인을 돕는 이중적 목표를 위해서는 마치 복잡한 퍼즐조각을 맞추는 것과 같이 다양한 학문분야로부터 적절한 개념들을 채집해 와야한다"고 주장한다. 사회복지실천을 하나의 이론으로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대부분이 공감하는 사실이며, 실제로 사회복지 실무에서 활용되는 이론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이 다양한 개념모델과 이론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hess, & Norlin, 1991).

그러나, 다른 학문적 배경으로부터 파생된 지식이 유독 많은 사회복지실천의 이론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퍼즐게임 이상의 어려움을 동반한다. 타 학문의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배경과 흐름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학자가 학문적 맥락의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지식을 차용할 때 특정 이론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거나 편파적인 내용으로 왜곡할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한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초점은 다른 분야로부터 지식을 빌려왔다는 것 자체보다는 이러한 지식들이 실천현장에서 의미를 갖고 적합한 사회복지실천이론들로서 선택되고 활용되는가? 라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이들 실천이론이 사회복지실천의 본질을 반영하는 지식체계로서 내적일관성을 증가시키며 학문적 정체성을 찾는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대부분의 사회복지 실천이론이 갖는 편향적 속성 또는 모호성 때문에, 임상적 지식(clinical knowledge)과 실천적 사회활동(social work activity)간의 이론적 균형을 유지하며 복합적인 상황속의 인간을 응집력있게 설명해줄 단일이론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학문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식들의 적절한 선택과 지식체계를 재구조화하는 방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마타니(1995)는 단순히 이론들을 조합하는 절충적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패러다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한다. 자신의 기초적인 이론적, 경험적 이해를 기초로 패러다임을 선택하고 이에 따라 일관되게 이론이 선택되면서 개념적 차원의 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음에는, 선택된 핵심이론을 구체적인 환경적 맥락 안으로 끌어들이며 동일한 인식의 범주 내에서 적절한 기술들을 고려하게 된다.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면서 점차 보편적인 합의가 줄어드는 문제를 인식하고 선택된 기술의 적용과

정을 모니터링 하므로써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방법의 핵심은 사회문제를 보는 시각이 접근방법, 이론, 모델과 같은 지식의 선택 단계마다 일관되게 유지되므로써 맥락을 같이하는 지식들을 중심으로 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이론을 선택하고 실천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페인(Payne, 1997)은 이론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다양한 이론간의 비교를 통한 비판적 분석이다. 이 방법은 상반된 입장에 놓인 가치개념이나 관점을 비교하거나 사회복지의 본질에 대한 상이한 시각들간의 비교를 통해 현재의 실천상황을 대비시키면서 이론적 분석을 하는 것이다. 둘째는 선택주의로서, 하나의 이론만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복잡한 실천상황을 하나의 이론이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나, 기관이나 실천가의 의지에 따라 특정이론을 고수하기도 하며 결과적으로 선택된 이론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사용으로 익숙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심리치료나 알코올,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과 같은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클라이언트에게 미시적인 개입을 하는 사회복지사에게는 유용한 방법일 수 있지만 특정 모델이나 기법에 단순히 익숙해지는 경우, 전체적인 맥락과 다양한 이론적 이해 속에서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법들을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적용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절충주의적 방법으로, 이론의 구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론의 적용에 있어서도 여러 이론을 혼합하여(혹은 여러 이론을 연속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인 절충주의의 유형은 아니나, 특정 사례에 여러 이론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각 사례마다 다른 이론을 적용하므로써 이론들 간의 효과성을 비교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이론이 갖는 유용성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론들이 기초하는 시각이나 맥락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한 조합을 하는 경우 실천의 일관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실천모델에 관한 분석적 이해와 선택을 위해 마이어(Meyer, 1976)는 상이한 모델들을 비교하는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체계적인 관점을 기준으로 모델의 중심가치와 초점체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항목들을 살펴보므로써 각 모델이 강조하는 영역과 부족한 분석영역 등을 평가하며 결과적으로 많은 이론들의 유용성을 검토하고 선택할 수 있다. 관심 있는 모델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분석들을 구체적으로 적용시켜나가는 것도 펼쳐진 지식을 정리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비교하는 모델들에 관한 이론적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절충주의의 한계와 마찬가지로 개념들에 대한 평가가 비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보수적인 흐름을 따라 도구적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과학적인 실천지식이 실천현장의 문제를 다루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는 비판은 비실증주의자들만의 주장은 아니다. 라인과 화이트(Rein & White, 1981)는 클라이언트뿐 아니라 기관과 실무자를 위한 제도적 환경까지 포함하는 실천의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사회복지실천의 중심적 가치와 함께 통합된 개념들 속에서 고려하는 지식의 개발(knowledge building)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나아가, 실무와 관련된 지식은 일반적인 사회과학보다는 직접적인 기관의 실천적 맥락(context)에서 비롯되며 실무자가 처해있는 또는 특정 문제가 언급되는 기관의 상

황(제도적 환경)을 포함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대상을 고려하지 않는 지식(timeless, spaceless, personless knowledge)을 추구하는 이론가에 의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실천현장으로부터 지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하나의 연속적인 나선구조로 비유된다(Payne, 1997).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성된 실천지식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실천적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순환적 과정 속에서 사회복지실천이론이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쉰(Schön, 1983)은 실천현장에서 접하는 사례들을 분석하고 관련 연구에 대해 인식하면서 전문성 계발을 추구하는 반영적 실천가(reflective practitioner)가 되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의 구체성을 따져볼 때 현장에서 관심 있게 이루어지는 경험적 연구의 대부분이 기술적 문제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 환경의 미비로 검증결과들이 지식의 축적과 이론화과정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최근, 복잡한 상황속의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방법에 문제를 제기하며 질적 연구방법들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실천현장의 지식이 구체화되고 일반화되는 방법도 이와 같이 현장경험을 통해 개인의 주관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개인의 고유성에 적합한 변인을 찾아 인식을 구성하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실증적인 양적 연구에 비해 실천가에게 보다 현실적인 지식의 탐구방법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사회복지 전문가의 인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클라이언트의 주관적인 삶의 경험과 현실에 의미를 두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서비스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의 권위와 지식의 힘이 구조화된 실천현장에서 클라이언트와의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아직 추상적일 수 있으나, 개인이 갖는 의미체계에 초점을 두고 클라이언트의 사고과정과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sup>3)</sup>에 관심을 갖는 실천가의 자세는 강조될 필요가 있다.

### III. 나가는 글

사회복지사들은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어떻게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가를 이해하기 위해, 개입의 지침을 얻고 그에 따르는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이론적 지식을 사용한다”고 한다(Greene & Ephross, 1991). 문제는 실천과 관련된 지식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며, 이론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지식들 간의 통합성이 결여되므로써 내부적으로 학문적 일관성을 유지하며 외부적으로 학문적 정체성을 명확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양성을 내재한 사회복지실천학문에서 단일한 이론체계를 구성하는 일은 쉽지 않다. 또한, 사회변화에 민감한 실천현장의 상황적 맥락에 따라 적절한 지식의 선택은 유동적일 수밖에

3) 로즈(Rose, 1990)는 클라이언트가 현실을 인식하고 성찰할 수 있는 맥락화(contextualization)를, 로젝(Rojek et al, 1988)는 담론(discourse)을 통해 사회적 환경이 결정한 사고에 대한 재해석의 방법을, 푸크(Fook, 1993)는 개인의 문제에 대한 사회구조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한 서술적 사회조사(descriptive social history) 등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으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지식적 기반에 대한 평가나 담론형성의 분위기가 미숙한 것이 사실이다. 뒤늦은 감은 있으나, 우리 주변에 산재한 실천지식들을 모으고 분류하며 그 의미를 우리의 학문적 방식에 맞게 재단하는 작업은 사회복지실천의 학문적 발전과 전문화 방향에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오정수, (1997). "사회복지학 접근방법의 이중구조와 정합적 접근전망", *상황과 복지*, 2호.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131-158.
- 홍경준, (2002). "한국 사회복지학계 연구방법론의 동향", *상황과 복지*, 13호.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13-32.
- Austin, D. M., (1986). *A History of Social Work Educ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 Brekke, J., (1986). "Scientific imperatives in social work research: Pluralism is not skepticism", *Social Service Review*, 60, 538-554.
- Chess, W., & Norlin, J., (1991). *Human Behavior and the Social Environment: A Social Systems Model*. Boston: Allyn & Bacon.
-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1992a). *Curriculum Policy Statement for Baccalaureate Degree Programs in Social Work Education*. Alexandria, VA: CSWE.
-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1992b). *Curriculum Policy Statement for Master's Degree Programs in Social Work Education*. Alexandria, VA: CSWE.
- Dorfman, R., (1988). *Paradigms of Clinical Social Work*, Brunner/Mazel Publishers.
- Dore, M., (1990). "Functional theory: Its history and influence on contemporary social work practice", *Social Service Review*, 64(3), 358-374.
- Fook, J., (1993). *Radical Casework: A Theory of Practice*, Allen & Unwin.
- Germain, C. & Gitterman, A., (1987). "Life model versus conflict model", *Social Work*, 32, 552-553.
- Gould, K., (1987). "Life model versus conflict model: A feminist perspective", *Social Work*, 32, 346-351.
- Greene, R., & Ephross, P., (1991). *Human Behavior Theory and Social Work Practice*. New York: Aldine De Gruyter.
- Heineman, M., (1981). "The obsolete scientific imperative in social work research", *Social Service Review*, 66, 371-395.
- Hudson, W., (1978). "First axioms of treatment", *Social Work*, 23, 65-66.
- Imre, R., (1984). "The nature of knowledge in social work", *Social Work*, 29, 41-45.

- Johnson, T., (1972). *Professions and Power*. Macmillan Press.
- Kane, R., (1982). "Lessons for social work from the medical model: a viewpoint for practice", *Social Work*, 27, 315-321.
- Lowenberg, F., (1984). "Professional ideology, middle range theories and knowledge building for social work practice",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Practice*, 14, 309-322.
- Mattani, M., (1995). Knowledge for practice, C. Meyer & M. Mattani(Eds.), *The Foundations of Social Work Practice*, NASW Press.
- Meyer, C.H., (1987). Direct practice in social work: Overview, *Encyclopedia of Social Work*, NASW.
- Meyer, C.H., (1976). The changing concept of individualized services. R. Klenk & R. Ryan(Eds.) in *The Practice of Social Work*.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
- Payne, M., (1991). *Modern Social Work Theory*, Macmillan Press.
- Peile, C.,(1988). "Research paradigms in social work: From stalemate to creative synthesis", *Social Service Review*, 62, 1-20.
- Perlman, H., (1965). "Social work method: A review of the past decade," *Social Work*, 10(4), 166-178.
- Reamer, F., (1983). "The concept of paternalism in social work", *Social Service Review*, 57, 254-271.
- Reiff, R., (1974). "The control of knowledge: The power of the helping professions",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10(3), 451-461.
- Rein, M., & White, S., (1981). "Knowledge for practice," *Social Service Review*, 55, 4-21.
- Rojek, C., Peacock, G. & Collins, S. (1988). *Social Work and Received Ideas*. London: Routledge.
- Rose, S., (1990). "Advocacy/empowerment: An approach to clinical practice for social work",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17(2): 41-52.
- Rosen, H., (1988). Evolving a personal philosophy of practice: Towards eclecticism. R. Dorfman(Ed.), *Paradigms of Clinical Social Work*. New York: Brunner/Mazel.
- Schön, D., (1983). *The Reflective Practitioner: How Professionals Think in Action*. New York: Basic Books.
- Scott, D., (1990). "Practice wisdom: The neglected source of practice research", *Social Work*, 36(6), 564-568.
- Wakefield, J., (1996a). "Does social work need the eco-systems perspective?", *Social Service Review*, 70(1), 1-32.
- \_\_\_\_\_, (1996b). "Does social work need the eco-systems perspective?", *Social Service Review*, 70(2), 183-213.

- Waltz, T., & Groze, V., (1991). "The mission of social work revisited: An agenda for the 1990's", *Social Work*, 36(6), 500-504.
- Weick, A., (1983). "Issues in overturning a medical model of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28, 467-471.
- Wilding, P.(1982). *Professional Power and Social Welfar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